

삿포르AG 여자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

2003년 이후 14년만에 동계아시안게임 3000m 여자 계주 정상 탈환... 심석희·최민정 2관왕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14년 만에 동계아시안게임 3000m 계주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심석희(20)·노도희(22·이상 한국체대)·최민정(19·성남시청)·김지유(18·화성고)로 이뤄진 한국 여자 대표팀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르의 마코마나이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17 삿포르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10초515를 기록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중국(4분 10초980)을 0.465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03년 아오모리 대회 이후 14년 만이다.

한국은 2007년 창춘 대회와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 잇따라 중국에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쌍두마차' 심석희, 최민정을 앞세워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4차 대회에서 3000m 계주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위용을 선보였다.

지난 20일 여자 1500m 금메달을 거머쥔 최민정은 2관왕에 등극했다.

500m에서도 동메달을 딴 최민정은 메달 3개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앞서 열린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심석희도 나란히 2관왕에 등극했다.

한국은 레이스 초반 졸골 무난하게 선두를 유지했다.

선두를 유지하던 한국은 5바퀴를 남기고 비룡 터치를 하다가 중국에 추월을 허용했다.

이후 한국은 중국의 뒤를 바짝 뒤쫓으며 추월을 노렸다. 이 때 최민정이 나섰다 2바퀴를 남기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민

정은 한 바퀴를 남기고 중국의 귀이환을 아웃코스로 추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동메달은 4분 20초034를 기록한 카자흐스탄의 차지가 됐다.

이정수(28·고양시청)·신다운(24·서울시청)·서이라(24·화성시청)·박세영(24·화성시청)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5000m 계주 결승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자 박세영이 넘어지는 바람에 7분 02초703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금메달은 우다징, 한텐위를 앞세워 7분 01초983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중국이 가져갔다.

2008년 아오모리 대회부터 5000m 계주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한국 남자 대표팀은 4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 20일 1500m 금메달을 딴 박세영은 2관왕을 달성하지 못했고 앞서 열린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이라도 2관왕 등극을 놓쳤다.

2, 3위를 오가던 한국은 12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섰다가 다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한국은 졸골 2위를 유지하며 추월을 노렸지만 중국은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다.

두 바퀴를 남기고 마지막 주자 박세영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한 차례 추월을 시도했다 실패한 박세영은 반 바퀴를 남기고 재차 바깥 코스로 빠져나가 중국을 제치려 했다. 하지만 그러다 넘어지면서 중국에 금메달을 내주고 말았다.

박세영이 넘어진 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한국은 2위가 됐다.

일본이 7분 02초909를 기록해 동메달을 가져갔다.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르 마코마나이 빙상장에서 열린 2017 삿포르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심석희가 선두로 빙판을 질주하고 있다.

이승훈,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만m 금메달

'장거리 간판' 이승훈(29·대한항공)이 2017 삿포르아시안게임 남자 1만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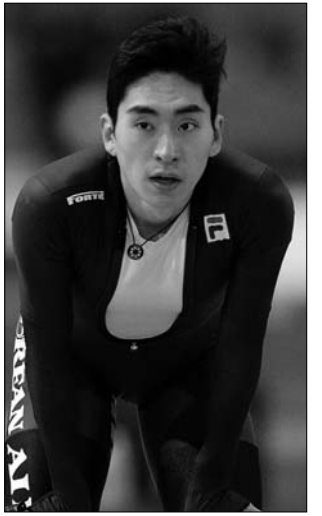
이승훈은 22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대회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만m에서 13분 18초56으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이날 두 번째 조에서 레이스를 펼친 이승훈은 자신의 개인 최고기록인 12분 57초2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월드컵 4차 대회에서 세운 시즌 최고 기록(13분 25초71)을 7초 이상 앞당기며 역주했다.

최고 라이벌인 일본의 츠치야 료스케가 마지막 레이스에서 3바퀴를 남겨뒀을 때까지만해도 1위를 달리며 이승훈을 위협했다.

그러나 료스케는 이후 급격히 기록이 떨어지며 13분 23초75로 결승선을 통과, 이승훈이 대회 2연패와 함께 2관왕을 확정했다.

일본의 이치노베 세이타로가 13분 44초73로 동메달을, 이진영(24·강원도청)은 14분 14초13으로 6위를 했다.



/김민근기자



김보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0m 선두

빙속 장거리 희망 김보름(24·강원도청)이 2017 삿포르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5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보름은 22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대회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0m에서 7분 12초58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 메이와 3조에서 레이스를 펼친 김보름은 시즌일관 안정적인 페이스로 얼음을 제쳤다. 레이스 중반까지 한 메이의 뒤를 쫓던 김보름은 이후 스피트를 하며 서서히 앞서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낸 김보름은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인 7분 17초88를 5초 이상 앞당기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합계 레이스를 펼친 한 메이가 7분 15초9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고, 일본의 키야마 미야가 7분 16초24로 3위가 됐다. 이번 대회 3000m와 팀추월 경기에서 모두 은메달을 획득했던 김보름은 개인적으로 욕심을 드러냈던 5000m에서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시상대 맨 위에 오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함께 출전한 박도영은 중반 이후 기록이 떨어지며 7분 28초00로 5위를 했다.

/김민근기자

전북 유일 실업축구단 '전주시민축구단' 출정식

올해 국내 성인 축구 최강팀 가리는 FA컵·K3리그 등 출전

전북 유일 실업축구단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출정식을 갖고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22일 전주시민축구단은 전주대 평생교육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명예구단주)과 선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올해 국내 성인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FA컵과 K3리그, 전국 체전 등에 출전한다.

시민축구단은 올해 국내외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비롯해 총 12명을 새롭게 영입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맹

훈련 중이다.

올해 K3 리그는 어드밴스(상위리그)와 베이직(하위리그)으로 나눠 자체 승강제를 실시하는 데, 전주시민축구단은 상위리그에 포함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FIFA U-20 월드컵이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만큼 축구 열기로 가득할 것이라며 "전주시민축구단도 올해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25일 경주 축구공원에서 전주시민축구단과 K3리그 1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